

2021년
고3 3모

2021년 시행 고3 3월 학평 국어 문학 새의 선물 변형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신 · 수능형 문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동안은 누가 나를 쳐다보고 수군거리기만 해도 엄마 이야기라고 지레짐작했으며 남에게 그것을 눈치채이기 싫어서 짐짓 고개를 숙여 버리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남에게 관찰당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

누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먼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시킨다. 하나의 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진짜 나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른 나로 하여금 내 몸 밖으로 나가 내 역할을 하게 한다.

내 몸 밖을 나간 다른 나는 남들 앞에 노출되어 마치 나인 듯 행동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몸속에 남아서 몸 밖으로 나간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의 나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자 하는 나로 행동하게 하고 나머지 하나의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 나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나 자신이 '바라보는 나'로 분리된다.

물론 그중에서 진짜 나는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바라보는 나'이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 것은 '보여지는 나'이므로 '바라보는' 진짜 나는 상처를 덜 받는다. 이렇게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킴으로써 나는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진짜의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것이 위선이나 가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 꾸며 보이고 거짓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일은 나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작위'라는 말을 알게 된 뒤부터 그런 의혹은 사라졌다. 나의 분리법은 위선이 아니라 작위였으며 작위는 위선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도덕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는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데에 나는

아무런 거리낌도, 빚진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모는 군인인 이형렬과 펜팔을 하게 되고 할머니의 눈을 피해 편지 전하는 일을 '나'에게 시킨다.

그러나 일단 그 관문만 지나면 어려운 단어나 비유법 없이 평이한 문장이 죽죽 나열되므로 아주 읽기가 편하다는 것이, 째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편지의 장점이었다.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대강 이런 이야기였다.

나, 이형렬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이 아무개 씨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나이는 22세. 대학에서의 전공은 토목과. 누나는 시집을 갔고 형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의 회사에서 사회 경험을 쌓는 중이다. 장래 소망은 전공을 살려 토목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계속하여 교수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리타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며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부터는 아내와 함께 테니스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살 계획이다. 다

[A] 를 줄 아는 약기는 하모니카이고 취미는 오토바이 타기인데 애인을 뒷자리에 태우고 숲길을 썩 달려 보는 게 오랜 꿈이었지만 아직 애인이 없어서 그렇게 해 보진 못했다. 그동안 공부밖에 몰랐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여자를 사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옥 씨의 사진을 받아 보고 특히 눈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동안 영옥 씨의 편지를 받아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름답고 순수한 영옥 씨를 알게 된 것은 신의 은총이다……

이모가 편지를 쓰는 시간은 대개 할머니가 잠든 밤이었다. 할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오면 연속극을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앉곤 했다. 하지만 초저녁잠이 많아서 그 좋아하는 연속

극을 언제나 끝까지 듣지 못하고 코를 고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귀로 듣기만 하면 되는 라디오인데도 연속극 시간에

는 다른 일을 모두 폐하고 꼭 그 앞에 바짝 앉아 굳이 라디오를 쳐다보면서 연속극을 들곤 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이야기가 그냥 지나쳐 버리더라도 한다는 듯이 라디오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 할머니 쪽을 쳐다보면 대개는 곤하게 잠이 들어 있기 일쑤였다. 내가 할머니를 흔들면서

“할머니, 할머니! 들어 보세요. 지금 드디어 그 딸이 엄마하고 만났어요. 지금요!”라고 연속극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면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잠이 들어 버렸다는 데 무안해진 할머니는 전혀 졸지 않았던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게 내며 “나도 안다, 알어” 하고 눈꺼풀에 힘을 주지만 조금 있다 보면 어느새 또 푸푸, 하는 일정한 리듬의 숨소리를 내며 도로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초저녁잠이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이모는 마음껏 금지된 편지를 썼고 나는 그동안 이모가 우리 미장원에서 빌려온 ‘선데이 서울’을 뒤적이고 있다가 이모가 맞춤법이나 표현에 대해서 물어 오면 자문관 역할을 해 줄 수 있었다. 이모가 이형렬에게 보내는 편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형렬이 이모에게 보내는 편지와 사이좋은 대구를 이루었다.

나, 전영옥은 경찰 고위직에 있었던 전 아무개 씨의 1남 1녀 중 막내이다. 오빠는 현재 법대 3학년이고 어머니가 농업과 건축업(가겏집 세놓은 일을 표현할 고상한 말을 찾던 이모는 집과 관계된 직업 중에 이 말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했다)에 종사한다. 아버지가 6·25 때 순직하여서 국가 유공자 집안이다. 나이는 21세.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지만(이 사실은 나도 처음 듣는 일이었지만 이모가 원서를 낸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B] 얼굴을 붉혀 가며 주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위를 가리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성격이 조용하여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이고 장래 소망은 현모양처. 남자 친구는 전혀 없으며 기회는 많았지

만 집안이 엄격하여 교제를 해 보지 못했다.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좋아하는 꽃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지닌 물망초. 그리고 이상적인 남성형은 변함없이 나를 아껴 주는 진실한 남성.

그러나 이모의 편지가 언제까지나 이런 입문 단계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의 편지는 점점センチ멘탈하게 변해 갔다. 그러더니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이따금 눈에 띄고 애뜻한 구절이 많아진다 싶을 무렵부터 더 이상 편지를 보여 주지 않았다. 그때부터는 표현에 대한 자문도 구하지 않았고 그런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할 만큼은 이형렬과의 관계가 발전한 것인지 맞춤법을 물어 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이제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 주지 않았다.

그래도 편지를 전해 주는 일은 여전히 내 소관이었으므로 나는 여전히 이모의 비밀을 헛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었다.

- '새의 선물'

[학평 변형 문제]

1.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서술자인 ‘나’가 편지의 내용을 간추려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 ② [A]와 달리 [B]는 서술자가 편지의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서술자가 편지의 내용에 직접적인 관여를 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편지 속에 숨겨진 사연에 담긴 슬픔을 들추어 내고 있다.
- ⑤ [A]는 서술자가 현재에 편지를 읽어 가는 방식으로, [B]는 과거에 본 편지 내용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학평 변형 문제]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남들이 엄마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 ② '나'는 이형렬의 편지가 길었지만 어려운 단어가 없어서 읽기에 편하다고 느꼈다.
- ③ 할머니는 '나'와 이모 사이의 관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④ 이모는 이형렬의 사진을 보고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의 집안 환경으로 위안을 삼았다.
- ⑤ 이모는 할머니가 초저녁잠을 주무실 때 마음껏 편지를 썼다.

[학평 변형 문제]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새의 선물'의 주인공은 열두 살밖에 안 된 소녀이지만 아이답지 않은 시선으로 어른의 세계를 관찰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감춘 채 어른들의 가식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주변 세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과 관련이 있다.

- ①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한 것은, '나'가 자신의 내면을 어른들에게 지속적으로 내면을 보여 주는 상황에 적응했기 때문이겠군.
- ②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나'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탐구와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겠군.
- ③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데 '빛진 마음'이 없다고 한 것은, '나'가 자신이 한 행위를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겠군.
- ④ 이모의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했다고 평가하며 '이형렬과의 관계'가 깊어졌으리라고 잘못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나'가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 ⑤ '이모의 비밀을 헛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

이라고 한 것은, '나'가 어른의 비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감추고 있다는 것이겠군.

[4~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동안은 누가 나를 쳐다보고 수군거리기만 해도 엄마 이야기라고 지레짐작했으며 남에게 그것을 눈치채이기 싫어서 짐짓 고개를 숙여 버리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남에게 관찰당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

누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먼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시킨다. ㉠ 하나의 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진짜 나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른 나로 하여금 내 몸 밖으로 나가 내 역할을 하게 한다.

내 몸 밖을 나간 다른 나는 남들 앞에 노출되어 마치 나인 듯 행동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몸속에 남아서 ㉡ 몸 밖으로 나간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의 나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자 하는 ㉢ 나로 행동하게 하고 나머지 하나의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 나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나 자신이 '바라보는 나'로 분리된다.

물론 그중에서 진짜 나는 ㉣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바라보는 나'이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 것은 '보여지는 나'이므로 '바라보는' 진짜 나는 상처를 덜 받는다. 이렇게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킴으로써 나는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진짜의 나 아닌 ㉤ 다른 나를 만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것이 위선이나 가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 꾸며 보이고 거짓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일은 나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작위'라는 말을 알게 된 뒤부터 그런 의혹은 사라졌다. 나의 분리법은 위선이 아니라 작위였으며 작위는 위선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도덕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는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데에 나는 아무런 거리낌도, 빛진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모는 군인인 이형렬과 펜팔을 하게 되고 할머니의 눈을 피해 편지 전하는 일을 '나'에게 시킨다.

그러나 일단 그 관문만 지나면 어려운 단어나 비유법 없이 평이한 문장이 죽죽 나열되므로 아주 읽기가 편하다는 것이, 짧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편지의 장점이었다.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대강 이런 이야기였다.

나, 이형렬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이 아무개 씨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나이는 22세. 대학에서의 전공은 토목과. 누나는 시집을 갔고 형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의 회사에서 사회 경험을 쌓는 중이다. 장래 소망은 전공을 살려 토목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계속하여 교수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리타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며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부터는 아내와 함께 테니스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살 계획이다. 다들 좋아하는 약기는 하모니카이고 취미는 오토바이 타기인데 애인을 뒷자리에 태우고 숲길을 썸 달러 보는 게 오랜 꿈이었지만 아직 애인이 없어서 그렇게 해 보진 못했다. 그동안은 공부밖에 몰랐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여자를 사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옥 씨의 사진을 받아 보고 특히 눈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동안 영옥 씨의 편지를 받아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름답고 순수한 영옥 씨를 알게 된 것은 신의 은총이다……

이모가 편지를 쓰는 시간은 대개 할머니가 잠든 밤이었다. 할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오면 연속극을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앉곤 했다. 하지만 초저녁잠이 많아서 그 좋아하는 연속극을 언제나 끝까지 듣지 못하고 코를 고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귀로 듣기만 하면 되는 라디오인데도 연속극 시간에는 다른 일을 모두 폐하고 꼭 그 앞에 바짝 앉아 굳이 라디오를 쳐다보면서 연속극을 들곤 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이야기가 그냥 지나쳐 버리더라도 한다는 듯이 라디오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 할머니 쪽을 쳐다보면 대

개는 곤하게 잠이 들어 있기 일쑤였다. 내가 할머니를 흔들면서

“할머니, 할머니! 들어 보세요. 지금 드디어 그 딸이 엄마하고 만났어요. 지금요!”라고 연속극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면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잠이 들어 버렸다는 데 무안해진 할머니는 전혀 즐지 않았던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게 내며 “나도 안다, 알아” 하고 눈꺼풀에 힘을 주지만 조금 있다 보면 어느새 또 푸푸, 하는 일정한 리듬의 숨소리를 내며 도로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초저녁잠이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이모는 마음껏 금지된 편지를 썼고 나는 그동안 이모가 우리 미장원에서 빌려온 '선데이 서울'을 뒤적이고 있다가 이모가 맞춤법이나 표현에 대해서 물어 오면 자문관 역할을 해 줄 수 있었다. 이모가 이형렬에게 보내는 편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형렬이 이모에게 보내는 편지와 사이좋은 대구를 이루었다.

나, 전영옥은 경찰 고위직에 있었던 전 아무개 씨의 1남 1녀 중 막내이다. 오빠는 현재 법대 3학년이고 어머니가 농업과 건축업(가갓집 세놓은 일을 표현할 고상한 말을 찾던 이모는 집과 관계된 직업 중에 이 말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했다)에 종사한다. 아버지가 6·25 때 순직하여서 국가 유공자 집안이다. 나이는 21세.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지만(이 사실은 나도 처음 듣는 일이었지만 이모가 원서를 낸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얼굴을 붉혀 가며 주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위를 가리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 결을 떠날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성격이 조용하여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이고 장래 소망은 현모양처. 남자 친구는 전혀 없으며 기회는 많았지만 집안이 엄격하여 교제를 해 보지 못했다.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좋아하는 꽃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지닌 물망초. 그리고 이상적인 남성형은 변함없이 나를 아껴주는 진실한 남성.

그러나 이모의 편지가 언제까지나 이런 입문 단계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의 편지는 점점センチ멘털하게 변해 갔다. 그러더니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이따금 눈에 띄고 애뜻한 구절이 많아진다 싶을 무렵부터 더 이상

편지를 보여 주지 않았다. 그때부터는 표현에 대한 자문도 구하지 않았고 그런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할 만큼은 이형렬과의 관계가 발전한 것인지 맞춤법을 물어 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이제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 주지 않았다.

그래도 편지를 전해 주는 일은 여전히 내 소관이었으므로 나는 여전히 이모의 비밀을 헛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었다.

- '새의 선물'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동의 묘사와 대화를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1인칭 주인공 시점만으로 서술하여 사건과 인물의 심리 등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을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④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작품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⑤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낭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나'는 누군가가 자신의 엄마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 ② '나'는 남들에게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다.
- ③ '나'와 이모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 ④ 할머니는 이모와 이형렬의 관계에 대해 눈치 채고 있었으나 모른 채 했다.
- ⑤ '나'의 이모의 아버지는 고위 공무원이었다.

6.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한다.
- ② 언어의 음악성을 부각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③ 작가를 대신해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 ④ 다양한 내용 전개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한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해 내용을 주로 전달한다.

7.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나'가 진실된 자신을 숨기는 이유.
- ② 이형렬의 가족 관계.
- ③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신 이유.
- ④ 이모가 이형렬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
- ⑤ 이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

8. ㉠~㉥ 중에서 그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 윗글과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권 씨는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 위에다 발부리로 뒹굴듯 모를 글썽지 그림인지를 자꾸만 그렸다. 먼지가 풀풀 이는 언덕길을 터벌터벌 올라왔을 터인데도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짓가랑이 뒤쪽에다 양쪽 발을 번갈아 가며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었다.

“십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의 수줍음이 싹 가시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워진 얼굴을 들어 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다.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십만 원 소리가 허망히도 나왔다.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그는 매우 사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는 것이었다. “뭐라고, 해외 취업? 그럼 외국에 나가 살겠단 말이지? 그건 안 된다.”

“왜요 고모, 쩌쩌하게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 봐 겁나서?”

훈이는 두 개의 간략한 질문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했다. 마치 이 두 가지 이유 외에 딱 이유란 있을 수도 없다는 말투였다. 나는 뒷에 얻어맞은 듯이 아연했다.

- ① 윗글과 <보기>의 서술자는 모두 작품 안에 위치한다.
- ② 윗글의 ‘나’와 달리 <보기>의 ‘나’는 자신의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의 서술자는 모두 다른 인물에 대해 관찰하기도 한다.
- ④ 윗글은 <보기>보다 서술자의 내면을 더 깊이 다루고 있다.
- ⑤ 윗글과 <보기>에서 서술자는 모두 다른 인물의 부탁을 받았다.

10. 윗글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서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았어.
- ② 이 작품에서 서술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선생님께 들었는데, 작품에서 ‘나’는 어른스러운 면이 있다고 느꼈어.
- ③ ‘나’가 자신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둘로 나누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느껴지기도 했어.
- ④ 작품이 진행되면서 서술자가 바뀌는 부분이 색다르게 느껴졌어.
- ⑤ ‘나’의 입을 통해 이모와 이형렬의 편지 내용을 보는 것은 마치 일기장을 훑쳐보는 듯한 느낌이었어.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동안은 누가 나를 쳐다보고 수군거리기만 해도 엄마 이야기라고 지레짐작했으며 남에게 그것을 눈치채이기 싫어서 짐짓 고개를 숙여 버리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남에게 관찰당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 나는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

누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먼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시킨다. 하나의 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진짜 나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른 나로 하여금 내 몸 밖으로 나가 내 역할을 하게 한다.

내 몸 밖을 나간 다른 나는 남들 앞에 노출되어 마치 나인 듯 행동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몸속에 남아서 몸 밖으로 나간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의 나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자 하는 나로 행동하게 하고 나머지 하나의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 나는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 나 자신이 ‘바라보는 나’로 분리된다.

물론 그중에서 진짜 나는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바라보는 나’이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 것은 ‘보여지는 나’이므로 ‘바라보는’ 진짜 나는 상처를 덜 받는다. 이렇게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킴으로써 나는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진짜의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것이 위선이나 ㉠ 가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 꾸며 보이고 거짓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일은 나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작위'라는 말을 알게 된 뒤부터 그런 의혹은 사라졌다. 나의 분리법은 ㉡ 위선이 아니라 ㉢ 작위였으며 작위는 위선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도덕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는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데에 ㉣ 나는 아무런 거리낌도, 빛진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모는 군인인 이형렬과 펜팔을 하게 되고 할머니의 눈을 피해 편지 전하는 일을 '나'에게 시킨다.

그러나 일단 그 관문만 지나면 어려운 단어나 비유법 없이 평이한 문장이 죽죽 나열되므로 아주 읽기가 편하다는 것이, 짧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편지의 장점이었다.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대강 이런 이야기였다.

나, 이형렬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이 아무개씨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나이는 22세. 대학에서의 전공은 토목과. 누나는 시집을 갔고 형은 ㉠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의 회사에서 사회 경험을 쌓는 중이다. 장래 소망은 전공을 살려 토목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계속하여 교수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리타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며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부터는 아내와 함께 테니스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살 계획이다. 다룰 좋아하는 악기는 하모니카이고 취미는 오토바이 타기인데 애인을 뒷자리에 태우고 숲길을 썩 달려 보는 게 오랜 꿈이었지만 아직 애인이 없어서 그렇게 해 보진 못했다. 그동안은 공부밖에 몰랐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여자를 사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옥 씨의 사진을 받아 보고 특히 눈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 그리고 그동안 영옥 씨의 편지를 받아 볼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름답고 순수한 영옥 씨를 알게 된 것은 신의 은총이

다……

이모가 편지를 쓰는 시간은 대개 할머니가 잠든 밤이었다. 할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오면 연속극을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앉곤 했다. 하지만 초저녁잠이 많아서 그 좋아하는 연속극을 언제나 끝까지 듣지 못하고 코를 고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귀로 듣기만 하면 되는 라디오인데도 연속극 시간에는 다른 일을 모두 폐하고 꼭 그 앞에 바짝 앉아 굳이 라디오를 쳐다보면서 연속극을 들곤 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이야기가 그냥 지나쳐 버리기라도 한다는 듯이 라디오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 할머니 쪽을 쳐다보면 대개는 곤하게 잠이 들어 있기 일쑤였다. 내가 할머니를 흔들면서

“할머니, 할머니! 들어 보세요. 지금 드디어 그 딸이 엄마하고 만났어요. 지금요!”라고 연속극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면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잠이 들어 버렸다는 데 무안해진 할머니는 전혀 졸지 않았던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게 내며 “나도 안다, 알어” 하고 눈꺼풀에 힘을 주지만 조금 있다 보면 어느새 또 푸푸, 하는 일정한 리듬의 숨소리를 내며 도로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초저녁잠이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이모는 마음껏 금지된 편지를 썼고 나는 그동안 이모가 우리 미장원에서 빌려온 '선데이 서울'을 뒤적이고 있다가 이모가 맞춤법이나 표현에 대해서 물어 오면 자문관 역할을 해 줄 수 있었다. 이모가 이형렬에게 보내는 편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형렬이 이모에게 보내는 편지와 사이좋은 대구를 이루었다.

나, 전영옥은 경찰 고위직에 있었던 전 아무개씨의 1남 1녀 중 막내이다. 오빠는 현재 법대 3학년이고 어머니가 농업과 건축업(가갯집 세놓은 일을 표현할 고상한 말을 찾던 이모는 집과 관계된 직업 중에 이 말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했다)에 종사한다. 아버지가 6·25 때 순직하여서 국가 유공자 집안이다. 나이는 21세.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지만(이 사실은 나도 처음 듣는 일이었지만 이모가 원서를 낸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얼굴을 붉혀 가며 주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 진위를 가리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성격이 조용하여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이고 장래 소망은 현모양처. 남자 친구는 전혀 없으며 기회는 많았지만 집안이 엄격하여 교제를 해 보지 못했다.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좋아하는 꽃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지닌 물망초. 그리고 이상적인 남성형은 변함없이 나를 아껴 주는 진실한 남성.

그러나 이모의 편지가 언제까지나 이런 입문 단계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의 편지는 점점センチ멘털하게 변해 갔다. 그러더니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이따금 눈에 띄고 애절한 구절이 많아진다 싶을 무렵부터 더 이상 편지를 보여 주지 않았다. 그때부터는 표현에 대한 자문도 구하지 않았고 그런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할 만큼은 이형렬과의 관계가 발전한 것인지 ㉔ 맞춤법을 물어 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이제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 주지 않았다.

그래도 편지를 전해 주는 일은 여전히 내 소관이었으므로 나는 여전히 이모의 비밀을 헛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었다.

- '새의 선물'

1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중 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일생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희화화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교차시켜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⑤ 작품 속에 서술자가 직접 등장하여 이야기를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12. 윗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 ① '나'는 자신을 분리한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 ② 이모는 이형렬과의 펜팔을 즐기지 않았다.
- ③ 할머니의 눈을 피해 '나'는 누군가 펜팔을 했다.
- ④ 이모는 이형렬과 취미가 비슷하다는 사실에 호감을 느꼈다.
- ⑤ 할머니는 설거지를 마치고 라디오로 연속극을 듣는 것을 즐겨 하셨다.

13. ㉑~㉕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말이나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밈.
- ② ㉒ :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밈.
- ③ ㉓ : 의식적으로 행한 적극적인 행위.
- ④ ㉔ : 한집안이 대대로 이어서 하는 사업.
- ⑤ ㉕ : 옳고 그름을 따지는 행위.

1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열두 살 소녀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진희(나)'는 어린 아이지만 아이답지 않은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관찰하며, 자신이 간파한 어른들의 비밀을 서슴없이 들추어 보여 준다. 자신이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해 버린 당돌하고 영악한 소녀 '진희'는 일찍 세상을 떠난 엄마에 대한 근원적인 상처를 안고 있다. 따라서 자신을 아껴 주는 외할머니와 조금은 철이 없는 이모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진희'는 세상이 결코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느낀다. 따라서 자신을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로 분리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 이 작품은 한 소녀가 자신의 내적 상처를 딛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 ① '나'가 자신을 분리법으로 나누는 모습은 아이

답지 않은 모습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 ② '내가 아는 어른들의 비밀'을 '나'는 서슴없이 들추어 보여 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나'가 이모가 편지를 보여 주지 않는 것에 상처를 입는 것은 소녀가 세상의 냉정함에 내적 상처를 입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수록 부분의 뒷부분은 주로 이모의 편지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닌 관찰자 시점의 성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나'가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라 자신을 나누는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이었겠군.

1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나'가 남에게 관찰당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다.
- ② ㉡ :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 대상이다.
- ③ ㉢ :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④ ㉣ : 이모와 편지를 주고받은 지가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좋아하는 감정 생겼음도 확인할 수 있다.
- ⑤ ㉣ : '나'가 이모보다 글쓰기 능력이 뛰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평 수록 외 지문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형렬의 첫 편지가 도착한 날 우리 집은 발칵 뒤집어졌다.

남향 마루에 봄별이 몹시 따사로운 날이었다. 나는 새로 받은 5학년 교과서의 표지를 싸기 위해서 흰 달력 종이를 지르고 있었고 아침부터 심심하다고 노래를 부르던 이모는 마침내 나갈 곳이 생겼는지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다. 머리를 다 감은 뒤 이모는 물이 똑똑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감싼 채 내 옆에 와 앉더니 물기를 털기 시작했다. 고개를 내 반대쪽으로 돌리고 힘차게 머리카락을 터는 이모는 남진의 '미워도 다시 한번'을 보다 구성지게 부르는 일에 정신을 집

중하느라고 물방울이 내 책 위로 마구 튀어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내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얼굴을 쳐든 순간 갑자기 이모의 노랫소리가 똑 멈추었다.

“어? 우리 집에 편지 왔나?”

이모의 시선을 따라가보니 커다란 가방을 멘 우체부 아저씨가 막 대문간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 집에 전영옥 씨 있어요?”

“전영옥? 전영옥은 전데……”

“여기, 편지요.”

우체부 아저씨에게서 그 군사 우편을 건네받고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더니 걸봉을 뒤집어 본 뒤 이모의 뺨 위로 배시시 홍조가 떠올랐다. 그러더니 몇 줄 읽자마자 갑자기 안절부절 일어서서 읽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 그리 급한지 중얼중얼 읽는 속도가 빨라졌으며 편지를 손에 든 채 마루 위를 왔다갔다 하는 품이 보는 사람을 여간 정신 사납게 만드는 게 아니었다. 다 읽고 난 뒤 이모는 그 편지를 무슨 합격 통지서를 내밀듯이 자랑스럽게 팔을 뻗어 내게 건네주었다.

“진희야, 너도 볼려면 봐. 펜팔 편지야.”

나 혼자만 듣기에는 이모의 목소리가 너무 컸다. 그 목소리는 그대로 방문을 뚫고 들어가서 동여맨 머리띠 아래로 반만 내놓아진 삼촌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삼촌이 곧바로 방문을 박차고 나왔다. 나는 이형렬의 첫 편지를 읽지 못했을 것이다. 삼촌은 경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모의 두 번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아마 삼촌은 바깥 동정을 살피느라 방문개로 돌렸던 시선을 그냥 다시 책상 위의 법전으로 가져갔을 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원래는 할머니의 한복 허리끈이었던 머리띠의 한끝을 분연히 휘날리며 이모의 뺨을 갈기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편지를 다시 돌려받으며 이모가 내뱉은 말은 내가 생각해도 누이동생을 가진 오빠를 충분히 흥분시킬 만했다.

“인제 군인이 애인 되면 통닭 사 가지고 면회도 가고 재밌겠지? 면회 가면 길 가던 군인들이 막 휘파람 불고 히야까시한다던데. 아유, 얼마나 웃길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삼촌 방문이 거칠게 열

렸고

“아이고, 엄니!”

하면서 자지러질 듯 놀라는 이모의 얼굴 위로 손바닥이 날아왔던 것은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이모의 자업자득인 셈이었다. 저녁에 발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아직까지 쿨럭거리고 있던 이모를 보더니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나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나자 그 얼굴이 한층 더 일그러졌다. 이모를 소리쳐 부르면서 부지깽이로 마구 정지바닥을 두드리는 것이 당장이라도 이모를 후려칠 기세였다. 이모가 두 팔로 머리를 싸안고 똥개처럼 옆 걸음을 치면서 슬금슬금 정지로 들어오자마자 할머니는 이모의 팔을 거칠게 붙들어서 바닥에 앉힌 뒤 또 한 번 부지깽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삼촌이 겁을 주었다면 할머니는 가시를 박는 격이었던 것이, 그때부터 끈질긴 문초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㉔ 이모의 자백에 따르면 이모는 그 펜팔을 잡지나 가요 책 뒤의 펜팔란에서 주소를 보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명랑이라는 잡지의 펜팔란에서 한 군인의 주소를 베껴와 펜팔을 시작한 것은 이모가 아니라 이모의 친구인 면장집 딸 경자 이모였다. 경자 이모는 펜팔 상대인 군인으로부터 자기에게 진실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에게 어울릴 만한 진실한 상대를 한 명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경자 이모는 그 진실한 상대로서 우리 이모를 점찍었고 이 이상 진실한 상대를 찾을 수 없으리라는 주석과 함께 이모의 주소를 적어 보냈다. 이모는

“네가 하도 썩맥이라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무조건 주소를 먼저 보내 놓았으니 편지를 받더라도 놀라지 마라.” / 는 경자 이모의 말을 듣고는 / “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짓을 하는 거니?” 하고 펄쩍 뛰면서 절교를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여기까지가 이모가 할머니에게 자백한 내용이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물론 왜곡이 있었다. 경자 이모가 자기의 애인에게 이모의 주소를 써 보낸 뒤 이모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다. 인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모 쪽에서 경자 이모에

게 압력을 가해 펜팔 상대를 소개 받은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모가 펄쩍 뛴 것은 사실이였지만 뛴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뛴 뜻이 놀랐다’는 말도 있지만 이모의 경우 그보다는 ‘뛴 뜻이 기뻐했다’ 쪽의 해석이 타당할 듯하다. 그리고 이모가 절교 선언을 하고 돌아와 버렸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 그 장면은 이모가 취조관인 할머니를 따돌리고 훗날 나에게만 덜어놓은 ㉕ ‘사실과 진실’ 인터뷰에서 이렇게 정정된다.

자기에게도 펜팔 상대가 생기게 될 것이란 소식을 미리 전해 듣고 이모는 크게 기뻐했다. 상대에 대한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기에 경자 이모에게 연거푸 질문을 퍼부어 대기도 했다

“근데 어떻게 생긴 사람이래? 키는 크다니?”

“응. 미남 인가 봐. 별명이 록 허드슨이래.”

“뭐? 그럼 순 아저씨같이 생긴 거 아니니? 록 허드슨이 뭐야, 제임스 단이라면 몰라도.”

그러더니 이모는 경자 이모 쪽으로 바싹 다가오며 또 물었다.

“너 그쪽에다 내 별명은 뭐라고 했어? 너도 나에게 대해 뭔가 소개를 했을 거 아냐.”

“했지. 문희 뺨친다고.”

“애는 문희가 뭐니, 나타리 우드라고 할 것이지. 그리고 너,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이라고 했겠지?” / “그래, 장래 희망은 현모양처 고.”

절교 선언을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와 버리기는 커녕 이모는 이런 식으로 경자 이모와 더욱 긴밀한 우정을 나누다가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다. 그날의 헤어짐이 특히 아쉬웠던 것은 경자 이모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모조리 이모의 마음을 들뜨게 했기 때문이었다. 경자 이모에 따르면 이형렬이라는 군인은 서울 사람에다가 부잣집 아들, 대학생, 취미는 영화 감상, 특기는 오토바이타기……. 들으면 들을수록 설레는 얘기뿐이었다. 이모는 자기에게 닥쳐온 행운이 믿어지지 않아 가장 연한 허벅지 안쪽 살을 살짝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였다.

뒷부분의 줄거리

이모는 이형렬과 연애를 시작한다. 진희는 삼촌과 함께 온 삼촌 친구인 허석이 염소가 있는 동

산에서 하모니카를 부는 모습에 첫눈에 반한다. 그러나 허석은 이모에게 관심이 있다. 이형렬은 경자 이모와 바람이 나고 실연당한 이모는 허석과 다정한 사이가 된다. 어느 날 경자 이모는 공장에 난 불로 죽는다. 허석이 떠나고 진희는 동산에서 하모니카를 부는 남자를 다시 보게 되지만 그는 허석이 아니다. 그해 겨울, 진희는 그동안 존재를 몰랐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 '새의 선물'

16. 윗글을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이 경과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에 맞는 적절한 화면 편집 기술이 필요할 듯해.
- ② 행동 묘사에 의해 인물의 심리가 표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배우에게 섬세한 표정 연기를 요구해야 해.
- ③ 하나의 사건이 두 가지 시각으로 전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장면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꼼꼼히 그려 내야 해.
- ④ 작가가 자신의 어린 시절에 겪은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리고 있는 내용이므로 화제의 주인공인 서술자 '나'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그려 내야 해.
- ⑤ 당시에 유행하던 펜팔이나 가요, 영화배우 등을 자연스럽게 언급하며 작가가 겪은 세태를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므로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해.

17. ㉠과 ㉡를 비교하여 추론해 낸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주변에서 펜팔을 시작한 사람	경자 이모가 군인과 펜팔을 함
②	이모가 펜팔 친구를 소개 받게 된 경위	군인이 경자 이모에게 자기 친구와 어울릴 상대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함
③	이모의 펜팔 시작	이모가 몰래 군인에게 주소를 보냄
④	소개 받았을 때의 반응	이모가 떨면서 놀람
⑤	소개 받은 후의 행동	경자 이모에게 절교를 선언함

서술형 문제

[18~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동안은 누가 나를 쳐다보고 수군거리기만 해도 엄마 이야기라고 지레짐작했으며 남에게 그것을 눈치채이기 싫어서 짐짓 고개를 숙여 버리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남에게 관찰당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 나는 누구보다 일찍 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

누가 나를 쳐다보면 나는 먼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시킨다. 하나의 나는 내 안에 그대로 있고 진짜 나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른 나로 하여금 내 몸 밖으로 나가 내 역할을 하게 한다.

내 몸 밖을 나간 다른 나는 남들 앞에 노출되어 마치 나인 듯 행동하고 있지만 진짜 나는 몸속에 남아서 몸 밖으로 나간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의 나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자 하는 나로 행동하게 하고 나머지 하나의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때 나는 ㉡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나 자신이 '바라보는 나'로 분리된다.

물론 그중에서 진짜 나는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바라보는 나'이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 것은 '보여지는 나'이므로 '바라보는' 진짜 나는 상처를 덜 받는다. 이렇게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킴으로써 나는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진짜의 나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그것이 위선이나 가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다. 꾸며 보이고 거짓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일은 나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작위'라는 말을 알게 된 뒤부터 그런 의혹은 사라졌다. 나의 분리법은 위선이 아니라 작위였으며 작위는 위선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부도덕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아는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데에 나는 아무런 거리낌도, 빛진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중략 부분 줄거리] 이모는 군인인 이형렬과 펜팔을 하게 되고 할머니의 눈을 피해 편지 전하는 일을 '나'에게 시킨다.

그러나 일단 그 관문만 지나면 어려운 단어나 비유법 없이 평이한 문장이 죽죽 나열되므로 아주 읽기가 편하다는 것이, 짧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편지의 장점이었다.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대강 이런 이야기였다.

나, 이형렬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이 아무개 씨의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나이는 22세. 대학에서의 전공은 토목과. 누나는 시집을 갔고 형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의 회사에서 사회 경험을 쌓는 중이다. 장래 소망은 전공을 살려 토목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공부를 계속하여 교수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리타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으며 결혼을 빨리 해서 가정을 이룬 다음부터는 아내와 함께 테니스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살 계획이다. 다
[A] 를 줄 아는 약기는 하모니카이고 취미는 오토바이 타기인데 애인을 뒷자리에 태우고 숲길을 뺨 달려 보는 게 오랜 꿈이었지만 아직 애인이 없어서 그렇게 해 보진 못했다. 그동안은 공부밖에 몰랐고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여자를 사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옥 씨의 사진을 받아 보고 특히 눈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동안 영옥 씨의 편지를 받아 볼 때마다 어찌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름답고 순수한 영옥 씨를 알게 된 것은 신의 은총이다……

이모가 편지를 쓰는 시간은 대개 할머니가 잠든 밤이었다. 할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오면 연속극을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앉곤 했다. 하지만 초저녁잠이 많아서 그 좋아하는 연속극을 언제나 끝까지 듣지 못하고 코를 고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귀로 듣기만 하면 되는 라디오인데도 연속극 시간에는 다른 일을 모두 폐하고 꼭 그 앞에 바짝 앉아 굳이 라디오를 쳐다보면서 연속극을 들곤 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면 그 사이에 이야기가 그냥 지나쳐 버리기라도 한다는 듯이 라디오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대목에서 할머니 쪽을 쳐다보면 대개는 곤하게 잠이 들어 있기 일쑤였다. 내가 할머니를 흔들면서

“할머니, 할머니! 들어 보세요. 지금 드디어 그 딸이 엄마하고 만났어요. 지금요!”라고 연속극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면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잠이 들어 버렸다는 데 무안해진 할머니는 전혀 졸지 않았던 사람처럼 목소리를 높게 내며 “나도 안다, 알어” 하고 눈꺼풀에 힘을 주지만 조금 있다 보면 어느새 또 푸푸, 하는 일정한 리듬의 숨소리를 내며 도로 잠들어 있었다.

할머니의 초저녁잠이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이모는 마음껏 금지된 편지를 썼고 나는 그동안 이모가 우리 미장원에서 빌려온 ‘선데이 서울’을 뒤적이고 있다가 이모가 맞춤법이나 표현에 대해서 물어 오면 자문관 역할을 해 줄 수 있었다. 이모가 이형렬에게 보내는 편지는 대충 이런 식으로 이형렬이 이모에게 보내는 편지와 사이좋은 대구를 이루었다.

나, 전영옥은 경찰 고위직에 있었던 전 아무개 씨의 1남 1녀 중 막내이다. 오빠는 현재 법대 3학년이고 어머니가 농업과 건축업(가갯집 세놓은 일을 표현할 고상한 말을 찾던 이모는 집과 관계된 직업 중에 이 말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했다)에 종사한다. 아버지가 6·25 때 순직하여서 국가 유공자 집안이다. 나이는 21세.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지만(이 사실은 나도 처음 듣는 일이었지만 이모가 원서를 낸 것까지는 사실이라고 [B] 얼굴을 붉혀 가며 주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위를 가리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성격이 조용하여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이고 장래 소망은 현모양처. 남자 친구는 전혀 없으며 기회는 많았지만 집안이 엄격하여 교제를 해 보지 못했다.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좋아하는 꽃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지닌 물망초. 그리고 이상적인 남성형은 변함없이 나를 아껴 주는 진실한 남성.

그러나 이모의 편지가 언제까지나 이런 입문 단계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모의 편지는 점점 센티멘털하게 변해 갔다. 그러더니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이따금 눈에 띄고 애뜻한 구절이 많아진다 싶을 무렵부터 더 이상

편지를 보여 주지 않았다. 그때부터는 표현에 대한 자문도 구하지 않았고 그런 형식적인 포장을 극복할 만큼은 이형렬과의 관계가 발전한 것인지 맞춤법을 물어 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이제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 주지 않았다.

그래도 편지를 전해 주는 일은 여전히 내 소관이었으므로 나는 여전히 이모의 비밀을 헛바닥 밑에 감추고 있는 셈이었다.

- ‘새의 선물’

18. ㉠의 이유를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 <조건>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 때문이다.’의 형태로 작성할 것.

19.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 <조건>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두 가지 효과를 하나의 문장으로 작성할 것.

20.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오.

- <질문>
- ‘나’가 전달한 편지들의 장점은 무엇인가?

21. [A]와 [B]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된 서술 방식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조건>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 '[A]와 [B]는 모두 서술자인 ~'의 형태로 작성할 것.

22. 윗글에서 이모가 방에서 마음껏 금지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를 작성하시오.

정답 및 해설

내신 · 수능형 문제

1. <답> ①

[A]와 [B]는 모두 서술자인 '나'가 편지의 내용을 간추려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B]는 [A]와 달리 간추린 편지의 내용에 서술자가 알고 있는 관련 내용을 덧붙임으로써, 편지를 쓴 이모의 가식적 모습을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2. <답> ⑤

'할머니의 초저녁잠이 그렇게 깊었기 때문에 이모는 마음껏 금지된 편지를 썼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답> ③

'어른들의 비밀'을 털어놓는 데 '빛진 마음'이 없다고 한 것은, '나'가 자신의 행위를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4. <답> ④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었으므로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작품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5. <답> ④

이 글에서 할머니는 이모와 이형렬의 관계에 대해 눈치채고 있었으나 모른 채 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6. <답> ③

이 작품은 소설이므로 작가를 대신해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술자를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7. <답> ③

이 글에서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신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

8. <답> ①

㉠은 '나'의 몸 안에 있는 진짜이고, 나머지는 모두 나를 숨기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이다.

9. <답> ②

두 작품에서는 모두 '나'의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 <답> ④

이 작품에서 서술자가 바뀌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1. <답> ⑤

이 작품은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었으므로 작품 속에 서술자가 직접 등장하여 이야기를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12. <답> ⑤

'할머니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들어오면 연속극을 듣기 위해 라디오 앞에 앉곤 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답> ⑤

㉡ : 참과 거짓 또는 진짜와 가짜를 아울러 이르는 말.

14. <답> ③

'나'가 이모가 편지를 보여 주지 않는 것에 '나'가 상처를 입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15. <답> ②

남의 시선으로부터 강요를 당하고 수모를 받는 대상은 '바라보는 나'가 아닌 '보여지는 나'이다.

16. <답> ④

서술자인 '나'는 어린 시절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보다는 화제의 주인공인 이모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그려 내야 한다.

17. <답> ③

㉢ '사실과 진실' 인터뷰에는 이모가 직접 편지를 보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서술형 문제

18. <답> 남에게 관찰당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19. <답>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않고 나 자신으로 그대로 지켜질 수 있다.

20. <답> 어려운 단어나 비유법이 없이 평이한 문장이 나열되어서 읽기가 편하고 짧다는 것이다.

21. <답> [A]와 [B]는 모두 서술자인 '나'가 편지의 내용을 간추려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22. <답> 할머니의 초저녁잠이 깊었기 때문이다.

서지정보
저자 이재균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0322-3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1.03.26
가격 1500원

